

# 루이스 칸의 엑서터 도서관 스케치 분석을 통한 기본형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ouis I. Kahn's "Form" of Exeter Librar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ketch

오광석\* / Oh, Kwang-Suek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Form drawing in which Louis I. Kahn's principal thought is immanent through the detail analysis on design process of the 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 based on his sketches and writings. The basic form is composed of three different space: one where students come together in the presence of books, another for the storage of books, and a third for reading in the light. Through the design process in the Exeter library, the basic form is maintained and it is derived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 human activities in the library. Particularly, the basic form is shaped around the idea that learning necessarily involved two complementary activities: on the one hand, the quiet introspective act of reading, and the other, the interpersonal exchange of ideas. And the basic form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gram requirements and formal transformations in the design.

키워드 : 루이스 칸, 기본형식, 스케치 분석, 3중 구성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 논문은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I. Kahn)이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 도서관(이하부터 엑서터 도서관으로 칭함)의 설계 과정에서 행한 스케치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주요한 설계개념이 '기본형식(Form)'<sup>1)</sup>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 동안 루이스 칸의 건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이고 심오한 철학적 사유로 인식되거나 결과물로서의 건축 공간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루이스 칸의 건축 이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는 철학적 사유나 결과물로서의 건물뿐만 아니라 설계과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루이스 칸의 전성기 대표작 중의 하나인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를 주요한 계획안의 변화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즉, 설계 스케치와 도판을 중심으로 설계 과정에서 제안된 각 계획안들의 주요한 특징과 변화의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체의 설계과정을 지배하는 기본형식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본형식과 설계프로그램과의 관계, 그리고 기본형식을 형성시켰던 배경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설계과정에 투여된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고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로서의 의의

를 가진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축가의 스케치는 설계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논문에서는 루이스 칸이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과정에서 행한 스케치를 1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즉, 펜실베이니아 대학 건축 자료관의 루이스 칸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설계 스케치<sup>2)</sup>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

1)'Form'은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써, 그는 "What characterized one existence will from another"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간의 본성'이나 '존재의지'에 대한 형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칸의 'Form'은 '형태', 또는 '선-형태'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이들 어휘들은 칸의 개념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유에서 'Form'의 의미가 설계과정을 통해 어떻게 실체화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고, 그 일환으로 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엑서터 도서관의 스케치에 주목한 것이다. 즉, 칸은 엑서터 도서관의 'Form'을 통해 "도서관의 정신" 즉, 도서관이 진정으로 어떠한 지에 대한 사고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이것은 그의 스케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구성 형식을 '기본형식'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Form'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용희, 루이스 칸의 건축존재론,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pp.223-227 참조

2)Tzonis, Alexander ed., The Louis I. Kahn Archives: Personal Drawings, Garland Publishing, Vol.4, 1987, pp.382-453. 루이스 칸의 스케치집은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범례가 없는 경우, 각 도판의 일련번호 앞에 Archive의 약자로 'A'를 임의로 표기해서 구분하였고, 엑서터 도서관의 작품번호인 710은 생략하였다.

\* 정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전임강사

중 일부분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설계과정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sup>3)</sup> 또한 루이스 칸의 전작집<sup>4)</sup>에 수록된 도판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먼저 이 스케치들과 도판들을 월 단위의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고, 계획안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흐름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에 이 큰 흐름에 정합하도록 날짜가 없는 스케치와 분석의 대상에 포함된 다른 도판들<sup>5)</sup>을 삽입하였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된 도판들을 중요 도면과 참고 도면, 그리고 제의 도면으로 분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중요 도면과 참고 도면을 구체적인 설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sup>6)</sup>

## 2. 각 단계별 계획안의 변화

엑서터 도서관은 최종 안이 결정되기까지 대략 6개의 계획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스케치들을 시간 순으로 분류한 결과를 <표 1>로 정리하였다. 엑서터 도서관의 계획안을 전부 6개의 단계로 구분하였고, 표의 세로축은 각 단계별 계획안의 시간적 순서를 가리키며, 가로축은 스케치의 대상이 된 엑서터 도서관의 각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

### 2.1. 제 1 안(1966년 4월~5월)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는 평면의 도식적 스케치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정방형을 내주부와 외주부로 분할하여 중앙에는 커다란 개방 공간을 두고 네 모퉁이에는 계단실 등 서비스 공간(servant spaces)을 계획하였다.<그림 1> 또, 모퉁이로부터 중앙부로 향하는 표시가 있는데, 건물의 진입구로서 이러한 대각선의 방향성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미

- 3) 엑서터 도서관의 경우, 루이스 칸의 남겨진 131장의 자필 스케치 중에서 29장(약 22.1%)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 4) Ronner, Heinz & Jhaveri, Sharad ed., Louis I. Kahn: Complete Work 1935-74, Birkhäuser, 1987, pp.292-301.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범례가 없는 경우, 각 도판의 일련번호 앞에 'C'라는 약자를 임의로 표기해서 구분하였다.
- 5) 엑서터 도서관에 관한 다음 세 편의 논문에서 수록된 도판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Wickersham, Jay, The Making of Exeter Library, Harvard Architecture Review, no.7, 1989, pp.138-149.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범례가 없는 경우, 각 도판의 일련번호 앞에 'W'라는 약자를 임의로 표기해서 구분하였다. 피터 코헨의 두 편의 논문(Kohane, Peter, Louis I. Kahn and the Library: Genesis and Expression of Form, Via, no.10, 1990, pp.98-131과 Kohane, Peter, Library and Dining Hall: Phillips Exeter Academy,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Rizzoli Press, 1991, pp.390-395) 중 후자에서 인용된 도판은 별도의 범례가 없는 경우, 각 도판의 일련번호 앞에 'K'라는 약자를 임의로 표기해서 구분하였다.
- 6) 참고 도면은 중요 도면을 분석하는데 단서를 제공한 도면을 말하고, 제의 도면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도면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중요 도면과 참고 도면은, 수집한 총 176장의 스케치와 도면 중에서 172장(약 97.7%)으로 이루어져 있다.
- 7) 제 1안은 1966년 5월 19일에 이루어진 건축주(엑서터 도서관 건립위원회)와의 회합에서 제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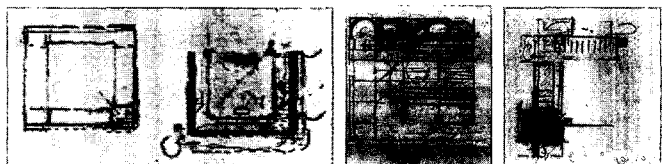
중앙홀의 원형 개구부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계의 진행 과정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sup>8)</sup>

<표 1> 시간적 순서에 따른 도판 분류표

계획안	년/월	배치계획	간공의 전체형	중앙홀	내주부	외주부	탑	지붕층	입구 계단	세부
1	1966/ 4		34, 35, 72, 73, 87, 88, 89, 74, 91, 92, 102(?)	W6, W7, W8, W9, W13, C2, K506, K507						
	1966/ 5						38, 40, 40-1	102(?)		
2	1966/ 6 H1		42							
	1966/ 8		43, 75, 85(?)			B2(?), B4(?)	75			
	1966/ 9		87(?), C3, W14, W21, K508	96	93	93, W22	51(?), 62(?), 65(?), 68(?), 67(?), 80(?), 83(?), 96, 129(?)			89(?), 90(?)
3	1966/ 10		C4, W29							
	1966/ 11		44, 60, 79(?), 81(?)	K510				59(?), 60(?), 79(?)		
4	1967/ 1		45, 46, 53(?)	98(?)	50(?), 47(?), 54(?), 55(?), 56(?), 58(?)	47(?), 42(?), 54(?), 55(-1?), 56(?), 58(?)		45, 46,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98(?)	49(?), 57(?)
	1967/ 3		76, 138(?)	78(24), 138(?)						
	1967/ 4		C7(?)				140(?)		139(?)	
	1967/ 5		W23							
	1967/ 6		K509							
	1967/ 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8(?), C17(?)							
	1967/ 10		W34							94
5	1967/ 11		W34							W41
	1968/ 2		99(?)							
6	1968/ 7		2(?)	3(?)	100(?)			70(?), 71(?)		58(?), 64(?), 97(?), 103(?), 132(?), 133(?), 134(?), 135(?)
	1971/ 9		4(?)							131
	1971/ 11		C19, C20, C21, C22, C23, C24, C25, C26, W36							C42, C43, C44
	1971/ 12									W43, W44

- W J. Wickersham의 논문에서 인용된 도판
- C 루이스 칸의 전작집에 수록된 도판, 엑서터 도서관의 작품기호인 PLD는 생략
- K P. Kohane의 논문에서 인용된 도판
- 그 외 Louis I. Kahn Archive에 수록된 도판, 엑서터 도서관의 작품번호인 710은 생략
- (?)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도판

한편, 5월이 되면 단면 스케치가 나타나는데,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구분되는 수직 3분할의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중층부에는 중2층(mezzanine)을 끼워 넣은 구성이 나타난다.<그림 2> 이때, 아치구조로 된 저층부에는 도서출납대, 참고도서, 정기 간행물, 소설, 회귀 도서 등을 위한 공간이 배치되었고, 중층부의 각 층에는 중2층이 설치되어 서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평면계획도 좀 더 구체화되는데, 중앙홀을 중심으로 그것을 둘러싸는 서가와 서비스 코어를 수용하는 내주부, 다시 그것을 둘러싸는 일반열람실과 캐털(개인열람실)을 수용하는 외주부 등으로 이루어진 3중 구성을 취하고 있다.<그림 3>



<그림 1> A.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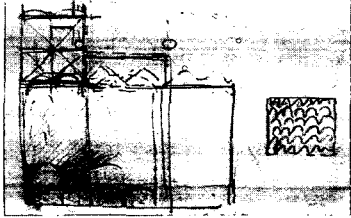
<그림 2> A.91

<그림 3> A.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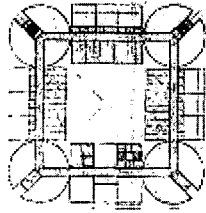
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일면 구성을 보여주는 스케치가 <그림 4>의 우측에 그려져 있다. 또, <그림 2>의 아

8) A.46, A.72, A.73, A.79, A.81, A.96, A.98, A.99, A.100, A.101 참조

래 작은 그림에는 중앙홀의 지붕 형태와 채광에 대한 검토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건물 전면의 양쪽에는 2개의 탑이 계획되었는데, 이 탑은 2 베이(bay)의 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홀로 인도하는 계단과 발코니를 포함하고 있다.<sup>9)</sup>



<그림 4> A.74



<그림 5> W.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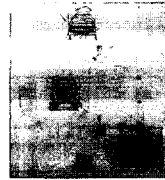
특히, 가운데 중심 공간을 가지는 개념은 전체의 설계과정에 있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일본인 건축가 사미즈(Hideki Shimizu)가 그린 평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sup>10)</sup><그림 5> 중심 공간의 네 모퉁이에 계단실, 엘리베이터, 그리고 다른 서비스 공간을 둔 코어를 배치하고 바깥쪽 테두리 부분에 캐럴을 배치하였으며, 그것들 사이에 서가를 위치시켰다. 이상과 같이 제 1안에서는 전술한 평면의 도식을 통해 건물의 기본적인 공간 구성을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2.2. 제 2 안<sup>11)</sup>; (1966년 6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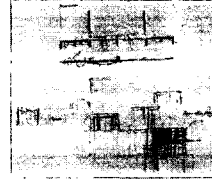
제 2안에서는 여러 도법의 스케치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기둥의 배치와 그것에 의한 공간 단위의 검토<sup>12)</sup>, 입면의 검토<sup>13)</sup>, 탑에 대한 검토<sup>14)</sup> 등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앙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즉, 그것의 구조 체계와 공간 배치, 그리고 중앙홀을 한정하는 벽의 형상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 벽에 뚫린 원형의 개구부와 그것을 통해 보이는 서가와와의 관계가 검토되고 있다.<그림 6> 또한, 캐럴의 구조 체계를 보여주는 기둥의 배치가 입면을 결정하는데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입면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 1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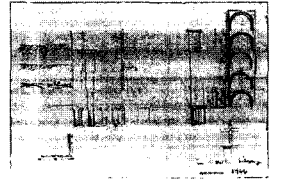
나타난 등근 아치의 형상과 평평한 수평 아치(jack arch)의 형상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즉, 1층의 아케이드는 등근 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층부에는 수평 아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기둥의 폭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데, 입면에 기둥의 역학적 성질을 형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림 8>



<그림 6> A.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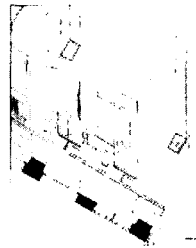


<그림 7> A.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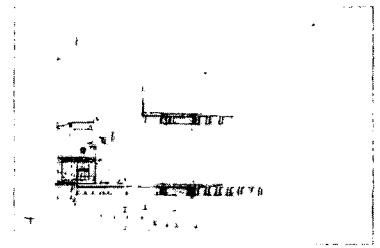


<그림 8> A.77

창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캐럴의 조망과 채광을 위한 창과, 일반 열람실의 채광을 위한 창이 구분되어 있다. 이로써, 입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베이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창은 두 개의 캐럴을 명시하는 것이고, 그 위쪽의 커다란 창은 캐럴과 서가의 사이에 있는 일반 열람실과 중2층의 발코니 부분을 위한 채광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9> 또한, 바닥 판 구조에 대한 2가지 공법(Void Slab와 Joist Slab)이 검토되는데, 이것은 서가의 하중에 대한 구조적 고려이다.<그림 10>



<그림 9> W.22



<그림 10> A.93

또한, 제2안에서는 실 배치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정기 간행물이 1층에, 소설은 3층에, 그리고 희귀 도서실과 두 개의 세미나실은 4층에 위치하도록 루이스 칸에게 요구하였다.<sup>15)</sup> 이 결과, 옥상정원이 제 1안에서보다 축소되었지만, 전체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경과로 보면, 제 2안에서는 제 1안에서 이루어진 기본적인 공간 구성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나 구법 등의 기술적 과제가 건물의 전체에 걸쳐 검토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2.3. 제 3 안<sup>16)</sup>; (1966년 11월)

제 3안은 위원회 측으로부터 지적받은 문제점들<sup>17)</sup>과 예산상

9)A.37, A.38, A.40, A.40.1과 전작집 C.2 참조. 이 탑과 그 속에 있는 건물의 입구 계단은 디자인 과정을 거치면서 제 3안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0)루이스 칸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 초기 단계에 참여하였다. W.6, W.9 참조

11)제 2안은 1966년 10월 3일에 이루어진 건축주와의 회합에서 제안되었다. 이때, 테라스와 외부 계단실, 그리고 옥상 정원 등이 뉴잉글랜드의 혹독한 기후에 부적절하다고 지적받게 된다. Kohane, Louis I. Kahn, p.392

12)A.42, A.43, A.75, A.82, A.8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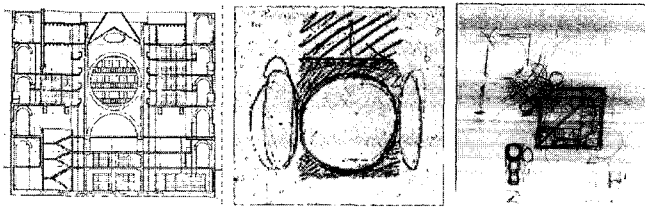
13)A.75, A.76, A.77, A.84, A.85, A.87 참조

14)A.43, A.51, A.62, A.65, A.66, A.67, A.75, A.76, A.77, A.80, A.83, A.96, A.129 참조

15)1966년 6월 3일, 위원회는 제 1안(1966년 5월 19일에 제안)의 실 배치에 대해 일부 조정하기를 루이스 칸에게 통보하였다. Kohane, Op. Cit., p.391

16)제 3안은 1966년 11월 11일에 이루어진 건축주와의 회합에서 제안되었고, 이 회합의 결과로 루이스 칸은 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의 초과<sup>18)</sup>로 1966년 11월 11일 회의를 얼마 남기지 않고 다시 디자인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로 제 3안은 제 2안과 형태적으로는 거의 같으나, 구조나 면적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1층에 있는 중2층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로써 높이에 따른 전체적인 외관의 비례가 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층 아케이드의 높이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완성된 건물은 땅딸막하게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제 2안<그림 10>에서는 책의 하중을 고려하여 서가와 외주부의 바닥 구조가 상이하였으나, 제 3안에서는 이것들이 동일한 콘크리트 슬래브구조로 변경됨으로써 2층의 바닥슬래브에 커다란 보가 생기게 된다.<그림 11> 또한, 제 2안에서 중앙홀은 벽돌로 된 조적식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중앙홀과 내주부의 구조가 벽돌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되었고, 탑의 규모도 축소되었다.



<그림 11> K.510

<그림 12> A.81

<그림 13> A.59

그런데, 중앙홀의 구조를 벽돌조에서 콘크리트조로 바꾼 것은 칸이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도서관에 대한 생각 즉, 중앙홀에서의 행위와 재료, 그리고 빛의 유형에 보다 적절한 것이었다. 공용의 행위가 일어나는 중앙홀은 톨라이트와 웅장한 콘크리트 볼륨에 의해 한정되고, 반면에 개인적인 독서를 위한 캐럴은 인간적인 스케일과 따뜻한 촉감을 주는 재료와 벽돌의 색깔, 그리고 조그마한 개구부 등에 의해 한정되었다. 또한, 중앙홀의 정사각형 벽에 있던 커다란 원형의 개구부와 저층부의 반원형의 아치는 재료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었다.<그림 12>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반원형 아치들은 제거되었다. 그 결과, 중앙홀의 벽은 현수 구조로서 단지 코너의 기둥<sup>19)</sup>에 의해서만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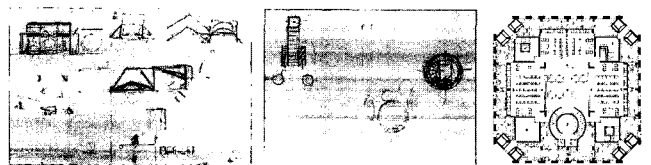
한편, 평면에서는 중앙홀을 지지하는 십자형 기둥과 코너에 있는 서비스 공간에 대한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건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탑의 형상이 삼각형에서 다시 사각형으로 바뀌며, 탑으로부터 중앙홀로의 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입구의 탑을 올라가서 중앙홀로 이르는 내관자의 움직임이 선으로 몇 번이나 덧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진입동선을 처리하는 것이 큰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그러나 이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보여주는 스케치는 남아 있지 않다.

제 3안은 예산상의 문제로 구조적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중앙홀의 공간적 성격은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루이스 칸이 가졌던 본래의 의도와 더욱 더 근접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 3안은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하면 제 2안의 연장상에 있는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다.

#### 2.4. 제 4 안<sup>20)</sup>; (1967년 1월~12월)

제 4안에서는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각 공간 단위들이 세부적으로 다루어졌다.<sup>21)</sup> 특히,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조례에 의해, 지붕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sup>22)</sup> 루이스 칸은 최상층의 지붕을 바깥쪽으로 물매지게 함으로써 얇은 피라미드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의 가운데 부분에는 중앙홀의 채광을 위해 빛을 조절하는 장치를 고안하였다.<sup>23)</sup> <그림 14>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무렵에 이미 중앙홀의 벽을 지지하는 사선 방향의 기둥이 검토되었음을 <그림 14>의 좌측에 그려진 스케치에서 알 수 있다.<sup>24)</sup>



<그림 14> A.98

<그림 15> A.101

<그림 16> C.9

1967년 초, 루이스 칸은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탑을 검토하면서 건물의 입구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한다. 그는 양 외부의 탑으로부터 외부계단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진입계단을 건물의 내부에 위치시켜서 중앙홀에 직접 연결하였다.<그림 15> 이로써 내관자들의 동선이 바뀌게 되었고, 내부의 중앙계단이

20) 제 4안은 1967년 5월 27일에 이루어진 건축주와의 회합에서 제안되었고, 1967년 7월에 각 층 평면도와 단면도가 실시설계도면으로 그려졌다.

21) 각 단위 공간에 대한 검토로서 서가와 일반 열람실, 그리고 캐럴의 배치와 서비스 코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졌다. A.47, A.49, A.52, A.54, A.55, A.55.1, A.56, A.57, A.69 참조

22) 루이스 칸은 1966년 12월 6일 3개 층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조례를 통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칸은 지붕의 경사를 조절하였고 최상층을 일부 수정하였다. Wickersham, Op. Cit., p.143

23) A.45, A.46과 W.23 참조

24) 그러나 제 4안의 완성도면에는 여전히 십자형의 기둥으로만 그려져 있으며, 사선 방향의 기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최종 계획안(제 6안)에서 이루어진다. A.58과 C8, C9, C10, C11, C12, C13, C14 참조

17) 1966년 11월 7일 위원회는 제 2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외부 계단을 통해 건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공간의 가변성이 부족하며, 캐럴이 커다란 유리창 바로 밑에 있어 찬 공기에 노출된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Kohane, Op. Cit., p.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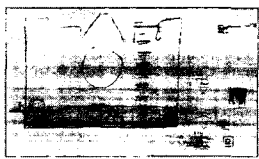
18) 엑서터 도서관 건립위원회는 1966년 10월 28일 루이스 칸에게 도서관 건립 예산이 250만 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려 왔다. 10월말 당시의 계획안이 344만 달러 정도로 추정됨으로써 결국, 칸은 예산의 초과로 인해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Wickersham, Op. Cit., pp.142-143

19) 이 기둥은 이후 좀 더 수정되어 대각선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완성 단계에서는 X자형의 깊은 보와 결합된다.

전체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내관자는 1층으로 직접 진입하게 되고, 내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도서 출납대와 중앙홀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계단에 대한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는데, 실시도면이 진행 중이었던 1968년 8월까지도 이 계단에 대한 최종안이 건축주와 협의 중이었다. 이러한 스케치들에는 직선계단, 돌음계단, 원호형의 계단, 또는 입구의 문과 일체로 된 것과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계단이 하나인 것과 두 개 혹은 세 개가 세트로 된 것 등 많은 종류의 계단이 검토되었다.<sup>25)</sup> 외부 계단이 제거됨으로써 주 기능을 상실한 탑은, 그 크기가 축소되고 결국 사라지게 된다. 이 결과, 루이스 칸은 코너 부분의 처리에 대해 재고하게 되는데, 결국 그는 모퉁이 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외주부의 벽돌 프레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건물 외관이 모든 방향에서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보이게 됨으로써, 전체 건물이 정육면체로서 인식된다. 1967년 7월, 각층 평면도와 단면도가 완성도면으로 그려지면서 제 4안이 만들어졌다. 이 때, 입구계단은 나선형으로 주출입구의 문과 일체가 되어 있다.<그림 16>

## 2.5. 제 5 안<sup>26)</sup>; (1968년 1월~3월)

제 5안은 'Scheme-E'라고 불리는 계획안으로서 건축비의 초과로 인한 감액 안이다.<sup>27)</sup> 엑서터 아카데미 측에서는 루이스 칸에게 중앙홀을 제거하도록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책으로의 초대'를 위한 중앙홀을 제거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엑서터 도서관에서 중앙홀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공용의 '초대의 장소'인 진입 공간(entrance court)을 제거해야만 했다. 또한, 제 4안의 1층 부분이 삭제되고 그곳에 계획한 도서관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작업공간을 최상층에 있는 한 개의 세미나실로 옮겼다. 이로써 중앙홀이 1층으로 옮겨지고, 그 바닥은 몇 단의 단 차판으로 주위와 분절되었다.<그림 17>



<그림 17> A.99

이 안에서는 루이스 칸이 그 동안 유지해 왔던 단면의 3층부 구성(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는 'Scheme-E' 안이

25)이 진입 계단을 검토하는 스케치들이, 남아 있는 전체의 스케치들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도 이 계단이 전체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추측할 수 있다. 루이스 칸은 실시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바로 직전에 원형의 형태를 가지는 계단으로 결정하였다. A.48, A.63, A.88, A.101, A.104, A.105, A.106, A.107, A.108, A.109, A.110, A.111, A.112, A.113, A.114, A.115, A.116, A.117, A.118, A.119, A.120, A.121, A.122, A.123, A.124, A.125, A.126, A.127, A.1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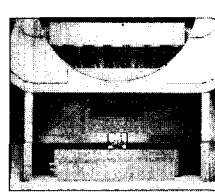
26)1968년 3월 4일 건축주와의 회합에서 제안되었다.

27)1968년 1월 2일, 엑서터 아카데미 측에서는 계획안(제 4안)의 건축비를 약 435만 달러로 추정하였고, 이것은 루이스 칸의 사무실에서 추정했던 것보다 약 9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Wickersham, Op. Cit., p.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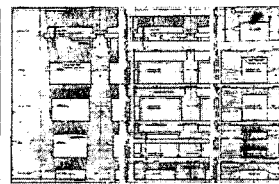
건물의 기능적, 공간적, 그리고 외관의 구성에 있어서 비판적이라는 호소력 있는 편지<sup>28)</sup>를 엑서터 아카데미 측에 보냄으로써, 이 계획안의 속행을 중지시켰다. 결국, 루이스 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1층이 살아남으로써 단면의 3부 구성이라는 큰 틀은 유지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sup>29)</sup>

## 2.6. 제 6 안(최종 설계안<sup>30)</sup>; (1968년 7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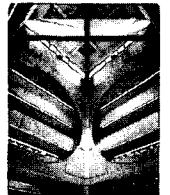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디자인이 행해졌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구조에 대한 검토와 중앙홀의 모퉁이 기둥에 대한 검토이다. 구조에 대한 검토는, 주로 서가를 수용하고 있는 내주부에 집중되고 있다. 즉, 서가 부분의 연직 하중을 2층의 천장부에 있는 큰 콘크리트 아치와 타이 바(Tie-bar)로 지지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그림 18> 그리고 외벽의 기둥은 자중만 담당하고, 실제 바닥판을 지지하는 것은 내부의 콘크리트 기둥이다. 즉, 외벽은 구조라기보다는 하나의 판면이며, 입면에서 나타나듯이 위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기둥은 조적식 내력 구조의 역학적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그림 19> 이것은 구조적인 역학 관계를 재현적 형상으로 나타내려는 구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8> 아치와 Tie-bar



<그림 19> C.44



<그림 20> 중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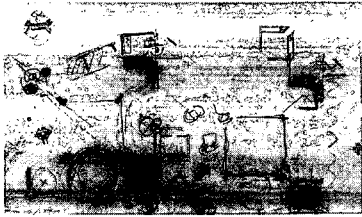
그리고 중앙홀을 한정하는 구조에 있어서, 벽과 원형의 개구부, 사선 방향의 기둥과 X자형 보(Plate Girder) 등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들은 엄격한 구조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 원형의 개구부가 뚫려 있는 중앙홀의 콘크리트 벽은 코너의 기둥을 보강하는 하나의 보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무게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조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천

28)"이 건물은 각 부분들의 구조와 공간, 그리고 재료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또 최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될 수는 없다. 나는 디자인을 진행하면 할수록, 가장 사소한 변화라 할지라도 건물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건물의 외부는, 벽돌로 된 내력벽의 구조적 질서를 전개함에 따라 나타나는 리듬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는 벽돌의 기둥은 그것들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 감소된다. 한 층의 제거는 이러한 리듬과 우아함, 그리고 단순함을 모두 잃게 하였다. 진정으로 심사숙고하건대, 한 층을 제거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므로 결단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Kohane, Op. Cit., p.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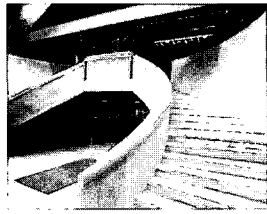
29)1968년 3월 4일, 아카데미 측은 예산을 380만 달러로 늘렸으며, 제안된 변경 사항들을 통합한 제 5안의 실시설계도면을 완성하도록 통보하였다.

30)1968년 11월 29일 실시설계 도면들이 완성된다. Ronner & Jhaveri ed., Op. Cit., p.297

장에 있는 X자형 보는 사선 방향의 기둥을 안정되게 고정시킴과 동시에 중앙홀의 채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그림 20>



<그림 21> A58



<그림 22> 입구계단

<그림 21>의 스케치는 중앙홀의 모퉁이 기둥이 십자형 단면에서 대각 방향의 벽기둥으로 치환되는 형태변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스케치의 우측 부분을 자세히 보면 기둥에 접하는 계단실부터 반복되는 선이 몇 그려져 있는데, 계단실과 중앙홀 사이의 동선이나 시각적 연결을 고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평면에서는 사선 방향의 기둥이 채택되었고, 입구의 원형 계단과 중앙홀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태적 변환에 따라 중앙홀의 지붕은 X자형으로 교차한 판보(plate girder)에 의해 지지되고, 동시에 입구 계단에서 중앙홀로의 동선과 시선은 부드럽게 연결되었다.<그림 22> 이상과 같은 디자인의 검토 과정을 거쳐 1968년 11월까지 44장에 달하는 최종도면이 그려지면서, 제 6안이 완성되었다. 평면 및 단면의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 최종안은 전술한 제 4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다.

### 3.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

이상과 같이, 제안된 각 계획안을 분석의 기본적인 단위로 해서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과정을 고찰하였다. 각 계획안의 중요한 형태적 특징들을 고찰하고, 이렇게 고찰된 특징들이 설계과정 전체에 있어서 어떻게 유지 및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설계과정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는 형태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기본형식'이라고 부르고, 그것의 구성을 평면과 단면을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이렇게 도출된 기본형식과 설계조건(program) 사이의 관계<sup>31)</sup>, 그리고 기본형식을 형성시킨 배경들<sup>32)</sup>을 고찰함

31) 루이스 칸이 기본형식을 사용한 근거는 근본적으로는 건축가로서의 주체적인 판단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이러한 기본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본형식을 지지하는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로서, 먼저 기본형식과 설계조건 사이에 존재하는 적합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요구된 설계조건에 대해 기본형식이 적합해야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엑서터 도서관의 경우, 설계조건은 건축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루이스 칸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건축프로그램에서 요구된 내용과 기본형식과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32) 기본형식에 대한 일관된 유지는 루이스 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그가 일관된 의지

로써, 루이스 칸이 기본형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건축적 사유를 이해하고자 한다.

#### 3.1. 기본형식의 구성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과정에서 제안된 각 계획안들의 평면과 단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설계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형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평면의 계획안별 추이를 보면, 초기에 그려진 평면 도식 즉, 중앙부, 내주부, 외주부로 이루어진 '3중 구성'은 최종 계획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단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이루어진 '3층부 구성'이 제 5안을 제외하고는 최종 계획안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은 '평면의 삼중 구성'과 '단면의 삼층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계과정의 초기에 나타난 도식에서부터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구조나 재료, 그리고 설계프로그램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설계과정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는 강력한 형식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2. 기본형식과 설계조건과의 관계

형태의 성립과 변화에 주목하여 도출된 기본형식은 실제 설계과정에서 요구된 다양한 설계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에서 작품의 형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설계조건은, 필립스아카데미의 도서관건립위원회가 작성한 건축프로그램이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 중의 일부분이다.

"이 도서관은 책을 수용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용하는 독자들을 수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 건물은 초록색 정원이나 다른 층의 그늘진 테라스를 통해서 독자와 연구의 즐거움을 고무시키고 보장해야 한다. 총 열람자들의 반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캐럴은 자연광을 누릴 수 있고, 즐거운 전망을 주는 창문 근처에 두어야만 한다. 인공 조명에는 자연광이 지니는 풍부한 색조의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광은 가능한 한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건물에 배치되는 공간들의 관계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서, 도서관에 들어온 내관자가 이 건물의 평면을 한 번에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sup>33)</sup> 이 프로그램에는 그 외에도 개개의 소요실들과 그 성격, 그리고 소요실 간의 관계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형식에서 명쾌하게 해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입구 근처에 있는 기능으로서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된 도서 출납대는 중앙홀에 인접한

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그것을 이루게 된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루이스 칸 자신의 다른 작품들과 그가 참조한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그것들과 엑서터 도서관과의 연관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루이스 칸이 기본형식을 이루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33) 최초의 프로그램은 엑서터 도서관 위원회와 교육전문건설당 회사 엔겔하트(Engelhardt)에 의해 작성되었다. Kohane, Op. Cit., p.390

주변부에, 옥외 테라스는 지붕층의 외주부에, “자연광과 경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창 가까이에 위치하며, 서가와 근접한 알코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해진 캐럴은 중층부의 외주부에, 회귀본 열람실과 세미나실은 지붕층의 내주부에, “각 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해진 타자실은 중층부에 있는 내주부의 모퉁이에, 그리고 “1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진 정기 간행물실은 저층부의 중앙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또한, 중앙홀은 프로그램 중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관자가 한 눈에 평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계조건에 변경에 따른 기본형식의 적합성도 읽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중층부의 각 층에 중2층을 삽입한 구성은, 장서수와 캐럴의 책상 수 사이의 비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축비의 삭감에 따라 내주부의 건축 재료가 벽돌에서 콘크리트로 변경된 것도, 기본형식에 의한 공간의 분절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이스 칸이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에 있어서 채용한 기본형식은,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잠재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3. 기본형식의 배경

평면과 단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형적인 면에서 엑서터 도서관은 르네상스의 팔라쵸(palazzo)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팔라쵸와 같이 이 도서관은 육중한 정방형의 벽돌 건물이며, 그 내부는 중앙의 중정(courtyard)으로 비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거대한 기념비적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실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쪽의 주 층(piano nobile)에 이르게 된다. 또한, 중앙홀은 종교적인 분위기로 압도하게 되는데, 이것은 루이스 칸이 ‘세계 내의 세계’라고 찬미한 로마의 판테온과 유사한 인상을 주고 있다. 즉, 판테온과 같이 엑서터 도서관의 중앙홀에는 상부에서 떨어지는 빛이 그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되며, 어떤 ‘정면성’을 느끼게 되기보다는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전체적인 공간’을 느끼게 된다.<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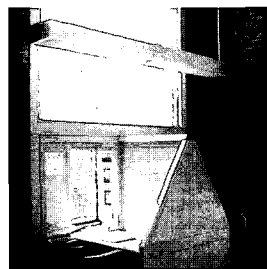


<그림 23> 피바디도서관      <그림 24> 펜실베이니아대학도서관      <그림 25> 불레, 국립도서관

17, 18, 19세기의 많은 도서관에는 수세기 동안의 축적된 지식에 대한 강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해, 책들로 둘러싸여진 커다란 중앙 공간이 있다. 그러한 예로써, 발디코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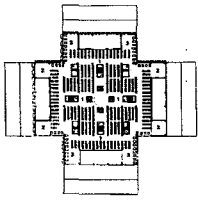
있는 피바디 도서관(1875-78)을 들 수 있다.<그림 23> 이 도서관에는 서가로 둘러싸인 커다란 중앙 공간이 있는데, 조르디는 “학식의 절벽(cliffs of erudition)”이라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다.<sup>34)</sup>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 도서관(1889)의 거대한 공용 공간은, 서가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화로 주위에 모여 편안하게 연구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공간이다.<그림 24> 루이스 칸이 이와 같은 도서관들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성격들을 엑서터 도서관의 중앙홀에 담고자 했음을 그의 스케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즉, 루이스 칸의 기본형식에 대한 스케치나 이와 연관되는 역사적 실례들은, 그가 엑서터 도서관에 부여하고자 하였던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가져야 될 본질로서의 의미에 관해 어떤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코헨은 중앙홀에 대한 루이스 칸의 사고가 불레(Étienne-Louis Boullée)의 국립도서관(1889)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sup>35)</sup><그림 25> 즉, 루이스 칸은 그 도서관의 중앙 공간을 “거대한 제국주의적인 방(great imperialistic room)”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곳에는 “도서관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다고 찬미하였다.<sup>36)</sup>

한편, 엑서터 도서관에서는 개인적인 독서를 위한 공간(캐럴)이 요구되었다.<그림 26>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지녀야 할 성격에 대한 루이스 칸의 자각은 이미 10여 년 전 그의 워싱턴 대학 도서관 계획안(1956)에서 보인다.<sup>37)</sup><그림 27>의 평면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형의 건물 주위로 캐럴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엑서터 도서관의 경우와 유사한 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열람실인 캐럴의 유래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실례들은 루이스 칸의 사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캐럴에 대한 중요한 영감은 중세 도서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그림 28>에서, 독서를 위한 캐럴들이 회랑들로부터 다소 떨어져서 밝은 빛 가까이 있고, 그 곳에서 한 명의 수도사가 책을 읽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캐럴의 공간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으며, 엑서터 도서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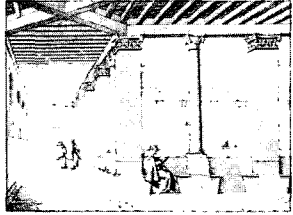


<그림 26> 엑서터도서관 캐럴

34)Jordy, William, American Buildings and their Architects: Progressive and Academic Ideal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1976, p.321, 또한, 코헨은 루이스 칸이 이 도서관에서 영감을 받았을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Kohane, VIA, p.109  
35)루이스 칸은 1968년 미국에서 있었던 불레의 디자인 전시회를 위한 서문에 한 편의 시를 썼다. Kohane, VIA, p.110  
36)Kohane, Louis I. Kahn, p.390  
37)이 계획안에서 가운데 부분에는 서가를 배치하고, 십자형의 평면 주위로 독서를 위한 공간(carrel)을 배치하였다.



<그림 27> 워싱턴대학 도서관



<그림 28> S. Maria della Pace



<그림 29> M. Altarpiece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Mérode Altarpiece, 1425-28)에서도 캐럴에 대한 칸의 사고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그림 29> 이 작품에서 요셉은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작업실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으며, 가끔씩 들창을 통해 바깥 거리를 바라다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엑서터 도서관의 캐럴에서도, 캐럴의 작은 창을 통해 캠퍼스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독서에 열중한 가운데 종종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

이상으로써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에는, 역사적인 실례들에 대한 루이스 칸 자신의 주체적인 이해가 그 근저에 깔려 있으며, 또한 그의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구현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품들에 내재된 내적 요인과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참조하는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본형식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4. 기본형식과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유

루이스 칸은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서가와, 중앙홀, 그리고 벽돌 구조로 이루어진 독서 공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을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엑서터 도서관은 빛이 있는 주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서를 하는 방은 사람이 혼자서 창가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캐럴(carrel)이 되며, 그러한 공간을 담고 있는 구조[구조체가 만든 벽 사이]에서 발견되는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벽돌로 만들어진 도넛과 같은 건물의 외주부를 책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넛 같은 내주부를, 책들이 빛으로부터 떨어져서 보존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은 결국 두 개의 연속적인 도넛들의 결과입니다. 즉, 그곳은 하나의 입구로서, 커다란 원형의 개구부를 통해 당신의 모든 주위로 책들이 보이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 건물에서 책들로 초대받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sup>38)</sup>

이 인용문은 루이스 칸이 설계과정에 있어서 기본형식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나 재료, 그리고 빛의 선택에 관여하게 되는 ‘Design’을 언

급함으로써 기본형식 즉, ‘Form’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다.<sup>39)</sup> 또한, 이러한 기본형식은 자의적인 발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루이스 칸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기본적인 3개의 공간을 대응시켰다. 즉, 내관자가 책으로의 초대를 받고 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책과의 시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중앙홀(지붕까지 3개 층에 걸쳐 개방됨)을, 그리고 책을 보관하며 각종 서비스 공간을 수용하는 장소로서 내주부(중2층을 가지고 있는)를, 마지막으로 빛이 있는 곳에서 독서를 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외주부(캐럴과 일반 열람실이 있는)를 각각 대응시켰다.

이러한 행위들 간의 관계와 쓰임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형식이 되었으며, ‘Form’이라는 개념을 내포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Design’은, 배움이라는 것이 책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두 가지의 상호 보완적인 행위(독서라는 개인적인 자성의 행위와 토론이나 교류의 행위)에 필연적으로 연유한다는 자각<sup>40)</sup> 즉, ‘Form’의 개념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요컨대, 엑서터 도서관은 ‘Form-Design’이라는 루이스 칸의 두 가지 차원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본형식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루이스 칸의 건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은, 단지 설계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초월하여 ‘도서관의 정신’ 즉,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시설에 대한 루이스 칸의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건축주를 대할 때, 나는 그가 드러내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다는 것을 처음부터 느끼게 된다. 나는 건축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필요조건에 근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필요조건] 속에 필요성을 초월한, 사람들 각각의 바람(Desire)을 고무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삼입하려고 한다. 또한, 그러한 것은 건물을 발주한 건축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측에서도 그와 유사한 바람을 고무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41)</sup> 이 말은, 루이스 칸이 설계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축주로부터 주어진 프로그램의 이면에 내재된 의미들을 찾고자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루이스 칸의 의도는 기본형식을 설계프로그램과의 관계로부터 생각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특히, “더 이상 현대의 도서관은 책이나 정기 간

39) Latour, Alessandra ed.,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1991, pp.115-116. 루이스 칸은 제1유니테리언 교회에 대한 설계의 전개과정을, 설계과정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는 ‘Form’과 그것에 기반 하여 전개되는 ‘Design’이라는 두 개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40) 내적 성찰을 위한 친밀한 스케일의 캐럴 공간은 토론이나 상호 교류를 위한 거대한 홀을 둘러싸고 있다.

41) Wurman ed., Op. Cit., p.120

38) 이 인용문은 루이스 칸이 1970년 2월 15일 엑서터에서 행한 강연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Kohane, Op. Cit., p.392



행물들의 저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나 실험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즉, 조용한 개인적인 연구와 독서, 그리고 자성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하며, 그 지역의 지적 센터가 되어야 한다”<sup>42)</sup>라는 조항은, 설계의 필요조건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설계자의 깊은 사색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루이스 칸은 엑서터 도서관에서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테이블이 없는 하나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웅장한 제국주의적인 방이며, 벽들을 따라 수많은 책들이 층층이 싸여 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책들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거기에는 앉을 만한 의자도 없으며, 책을 읽기 위한 책상도 없다. 단지 하나의 도서관이 어떡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느낌만 있을 뿐이다. 즉, 그 방에 들어서면 거기에는 모든 책들이 있다.”<sup>43)</sup> 이 말은 루이스 칸이 블레의 국립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그 도서관의 양쪽 벽면에 있는 책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전해지는 행위는 인류에게 지식이 전해지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공간은 가령, “배움에 대한 영감(inspiration)”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앙홀의 성격은 설계프로그램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기본형식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루이스 칸이 주체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찾고자 한 “필요성을 초월한 것으로, 사람들 각각의 바람(Desire)을 고무시킬 수 있는 성질”과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루이스 칸은 이러한 성질을 “책으로의 초대”라는 이미지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중앙홀로서 실체화한 것이다. 즉, 중앙홀은 인간이 책으로 초대되어, 도서관에 있어야만 하는 모습으로 둘러싸인 독자로 변모시키는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은 깊은 사색을 통해 도서관의 본질을 기본형식 속에 담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4. 결론

이상과 같이, 루이스 칸이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과정에서 행한 스케치를 분석함으로써 기본형식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기본형식과 설계프로그램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기본형식을 형성시켰던 배경 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형식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유를 연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엑서터 도서관의 스케치를 통해 도출된 기본형식은 ‘평면의 3중 구성’과 ‘단면의 3중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계과

정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는 강력한 형식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평면의 3중 구성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위에 대한 루이스 칸의 건축적 표현을 반영하고 있다. 즉, 도서관을 방문하는 내관자가 책으로의 초대를 받고 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앙홀과, 책을 보관하며 각종 서비스 공간을 수용하는 장소로서의 내주부, 마지막으로 빛이 있는 곳에서 개별적인 독서를 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외주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은 초기의 설계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후 설계조건의 변경에 따른 적합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이스 칸의 기본형식은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요구된 설계조건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을 폭넓게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도서관의 내관자가 중앙홀을 규정하는 벽체의 원형 개구부를 통해 책들과 시각적으로 교감할 수 있으며, 밝은 빛이 있는 외주부의 캐럴은 독서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 사이의 비교적 어두운 공간은 책들을 보관하기에 적절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에, 몇 차례 설계조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 설계 과정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었다.

3)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은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가져야 될 본질을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루이스 칸은 이러한 사례들에 내재하는 두 가지 성격, 즉 ‘엑서터 도서관의 중앙홀에는 내관자들이 책들로 둘러싸여 ‘배움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외주부의 캐럴에는 개인적인 독서와 사색을 위한 장소로서의 성격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엑서터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설계 개념으로서, ‘평면의 3중 구성’과 ‘단면의 3중 구성’으로 이루어진 기본형식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루이스 칸은 엑서터 도서관을 통해, ‘시설(institution)’의 의미가 건축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동기라는 점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칸에게 인간의 시설이란 경직된 기능의 조직이 아니라, 공동의 동의를 바탕으로 건축이 사회에 제공하는 하나의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건축가 개인의 특이한 발상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근본적인 바람 위에서 건축을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엑서터 도서관은 루이스 칸의 ‘시설로서의 도서관’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서관이란 책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중앙홀의 커다란 원형 개구부를 통해 책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책의 교훈으로 초대”하여 인류가 전해 준 지식의 정신에 동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엑서터 도서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42)Kohane, Op. Cit., p.390

43)Wurman ed., Op. Cit., p.182

## 참고문헌

1. Brownlee, David & De Long, David,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91
2. Latour, Alessandra ed.,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New York, 1991
3. Ronner, Heinz & Jhaveri, Sharad ed., Louis I. Kahn: Complete Work 1935-74, Birkhäuser, 1987
4. The Louis I. Kahn Collection, The Louis I. Kahn Archive; Personal Drawings, Vol.4, Garland Publishing, New York and London, 1987
5. Wurman, Richard Saul,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zzoli, 1986
6. 김광현, Le Corbusier와 Louis Kahn 건축의 비교를 통한 '시설'의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2001. 10.
7. 안용희, 루이스 칸의 건축존재론,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8. 오광석, Louis I. Kahn 건축의 공유성과 개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6
9. Kohane, Peter, Louis I. Kahn and the Library: Genesis and Expression of Form, VIA, no.10, 1990
10. Wickersham, Jay, The Making of Exeter Library, The Harvard Architecture Review, no.7, 1989

<접수 : 2005. 2. 28>